

LG화학, 리튬인산철 양극재 생산

독일 수드케미와 합작 MOU 체결 ... 2014년 말 2500톤 생산

LG화학이 독일 수드케미(Sud-Chemie)와 합작으로 양극재를 생산한다.

LG화학은 수드케미와 리튬인산철 양극재 생산을 위한 국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고 12월13일 발표했다.



양극재는 리튬 2차전지 생산비용의 40%를 차지하는 핵심소재로, 리튬인산철 양극재(LFP·LiFePO4)는 풍부한 철을 활용해 가격경쟁력이 높고 안전성 및 저장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양사는 앞으로 리튬인산철 양극재 생산 및 차세대 소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, 2014년 말 양산을 목표로 국내에 2500톤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.

LG화학은 합작을 통해 리튬인산철 양극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에너지저장시스템(ESS: Energy Storage System)용 대용량 리튬 2차전지의 사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.

김반석 LG화학 부회장은 “양사가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결합해 최고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”이라며 “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ESS용 대용량 리튬 2차전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할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12/13>